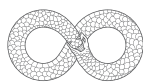

주간리트

조남희



orbibooks

검토진

- 박용규/22학년도 수능 국어 원점수 100
- 최재혁/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김근영/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서울국, 상상 모의고사 검토진
- 양정윤/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김은수/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지민선/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나 영/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강석현/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 배수정/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
- 이찬빈/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
- 이시우/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
- 이준원/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8
- 강경훈/행정고시 1차 합격
- 은은수/22학년도 리트 백분위 83
- 이석원/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9/피랩t 질답 조교
- 임상원/21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98/유대중t 더함 모의고사 검토진
- 이정원/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윤덕희/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모두가 능력 있으시고, 책임감이 있으셨던 검토진분들이셨습니다. 저의 교재 검토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토진분들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덧붙여 저의 해설에 대한 조언과 출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호 선생님/「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저자

조경민 선생님/「만점의 생각」 저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출 분석 과정 예시

1.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기
→ 리트 수험생 기준 6~8분
수능 수험생 기준 10~13분
2. 채점 전 시간 제한 없이 지문을 독해하며 본인의 독해 사고 점검 후 답을 고른 사고 과정을 점검.
3. 채점 후 스스로 지문 독해 및 선지 판단 점검.
→ 지문 독해는 내용정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독해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둔 분석.
→ 선지 판단은 근거 찾기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이 선지를 골랐는지에 초점.
4. 자신의 지문 독해 과정, 선지 판단 과정을 해설 통해 점검·보완.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사회 규범이다. 그리고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는 명령, 금지, 허용 등의 규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허용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통상 전자를 적극적 허용, 후자를 소극적 허용이라고 부른다.

[A]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이러한 규범 양상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입법 기술의 차원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그러한 분석은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거나, 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공해 준다. 가령 법의 한 조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다른 조항에서 그 행위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행위를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법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체계가 폐쇄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개방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가령 개방적 법체계 내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 허용이 금지를 부정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지탱할 수 있을 뿐인 나뭇조각을 서로 붙잡으려는 두 조난자에게 각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서로 상대방을 밀쳐 내어 죽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폐쇄적 법체계를 전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활동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폐쇄적 법체계 내에서 인간의 자유란 단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상태, 즉 명령도 금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란 게으른 법의 침묵 덕에 어찌다 누리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규범적 질량을 가지는 권리일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밀쳐내어 죽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와 허용 사이의 역설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산 자에 대한 위로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덕스러운 법이 언제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같아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자유의 질은 오히려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일도양단의 논리적인 선택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법상태를 옹호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19세기 분석법학이 추구한 엄밀성은 전통적인 법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은폐된 흠결을 간파하고 이를 적극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엄밀성은 사법 통제의 차원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른바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내리려는 시도에 대하여, 판결은 법률의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21 위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견해로 옳은 것은?

- ① 명확한 법을 갖는 것보다 유연한 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② 자유는 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가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 ③ 법의 지배를 강화하려면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④ 분석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의 합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입장은 자유의 확보에 기여한다.

22 <보기>의 법 조항에 대해 해석한 내용 중 '개방적 법 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① 출생한 이후부터 사람이므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되지는 않는다.
- ② 자살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타인의 자살을 돕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말기 암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생명이 위태로운 타인을 구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리 무관한 타인이라도 그의 생명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 ⑤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라도 살리기 위한 행위는 그것이 곧 나머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일지라도 허용된다.

23 [A]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 ②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 ③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어떤 행위가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21~23] 지문 독해

법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사회 규범이다.

법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우선 있는 그대로 법의 개념을 납득한 다음 독해를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는 명령, 금지, 허용 등의 규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법을 통한 행위의 지도는 명령, 금지, 허용 등의 규범 양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즉 법의 규범 양상, 법의 요소들을 제시해준 것입니다. 법은 명령, 금지, 허용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허용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통상 전자를 적극적 허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후자(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를 소극적 허용이라고 부른다.

앞서 제시된 법의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것, 금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적극적 허용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극적 허용은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은 해당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지문 독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히 각각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지문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지문 초반 정보

지문 초반부터 명령, 금지, 적극적 허용, 소극적 허용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 독해에 상당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독해 태도가 있지도 않고 쓰일 수도 없습니다. 초반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결국 지문 초반 이렇게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쏟아지면 특별한 독해 태도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써서라도 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일정한 의미론,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답니다. 즉 우리는 앞서 제시된 명령, 금지, 허용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해당 개념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며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지만,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며 소극적 허용을 함축합니다. 해당 문장을 독해하며 명령은 적극적 허용 함축, 금지는 적극적 허용 부정 / 명령은 소극적 허용 부정, 금지는 소극적 허용 함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당겨 읽기

명령은 행위를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극적 허용을 당연히 부정합니다. 또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허용을 당연히 부정합니다.

앞선 개념들을 당겨 읽으면 논리적으로도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실전에서 여러 변수로 당겨 읽기를 통한 판단이 어렵다면 우선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납득'이라도 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차선책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허용은 금지보다 넓은 범주이니 당연히 금지를 함축하지 않을 것이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적극적 허용 역시 명령보다 넓은 범주이니 명령을 함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금지와 명령보다 더 넓은 범주라는 이해를 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A가 B보다 넓은 범주라면 A는 B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포유류는 사람을 함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모순 같지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둘 다 가능성의 영역이므로 두 개념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허용이며 적극적 허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날려 읽으면 모순 같다 느껴질 수 있지만, 앞서 제시된 개념을 통해 해당 부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 tip 상위 범주 / 하위 범주

독해 시 명령은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명령이 소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적극적 허용의 하위 범주임을, 금지는 소극적 허용을 함축하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금지가 적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소극적 허용의 하위 범주라는 인식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명령, 허용, 적극적 허용, 소극적 허용은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해해 네 가지 양상으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독해를 진행하셨으면 충분합니다.

◇ tip 문장내 이해

[A] 부분에 제시된 각 규범 양상의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해 다시 돌아와서 파악하게 될지라도, 독해 시에는 최대한 관계를 정리하며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간의 관계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현 트렌드는 이해 없이 단순 서칭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문장 내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 내포된 뜻, 관계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독해 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범 양상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입법 기술의 차원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제시된 규범 양상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입법 기술의 차원에서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령, 금지, 허용의 관계가 어떻게 입법 기술에서 실천적 의의를 갖는지 파악해봅시다.

즉 그러한 분석은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거나, 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공해 준다.

규범 양상들의 관계는 법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법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 된답니다. 규범 양상들이 법을 명확하게 하며 과잉 방지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독해를 이어나가면 충분합니다.

가령 법의 한 조항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다른 조항에서 그 행위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행위를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다른 조항에서 그 행위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소극적 허용과 명령의 부정관계, /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행위를 명령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 적극적 허용이 명령의 상위 관계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예시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앞선 개념을 예시에 연결하는 독해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적극적 허용이 명령의 상위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앞서 +로 설명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분석이 법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개념 간 관계가 법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제시된 개념 간 관계가 비판받고 있는 것인지 ‘이유’에 집중하며 독해를 이어갑시다.

법체계가 폐쇄적일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통용될 수 있겠지만, 개방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 체계가 폐쇄적일 경우에는 앞선 관계에 대한 분석이 통용될 수 있지만, 개방적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즉 앞서 제시된 관계는 폐쇄적인 법체계에서 적용되는 경우이고 해당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입장은 개방적인 법체계의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가령 개방적 법체계 내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 허용이 금지를 부정한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적극적 허용과 금지가 부정 관계라 제시한 것과 달리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적극적 허용과 금지의 부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일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니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적극적 허용과 금지의 부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제시된 사실 자체를 납득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적 법체계에서 적극적 허용이 금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으로 따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임을 인식하셨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지탱할 수 있을 뿐인 나뭇조각을 서로 붙잡으려는 두 조난자에게 각자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서로 상대방을 밀쳐 내어 죽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예시도 예시 자체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금지되지 않은 행위면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예시를 통해 개방적 법체계 시점에서는 규범 양상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적 법체계의 경우를 비판하고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폐쇄적 법체계를 전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문제는 규범 양상 간의 관계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문제는 폐쇄적 법체계가 인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약화된다는 것인지 이해해 봅시다.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활동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지만, 폐쇄적 법체계 내에서 인간의 자유란 단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주어져 있는 상태, 즉 명령도 금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할 뿐이다.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법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활동이 가능하지만, 폐쇄적 법체계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있는 상태로만 지칭될 뿐입니다. 둘을 대비해주며 제시된 그대로 정보를 구분해주고 독해를 진행

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란 게으른 법의 침묵 덕에 어찌다 누리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규범적 질량을 가지는 권리일 수는 없게 된다.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이 동시에 주어진 상태를 자유로 보기에 자유의 가치가 약화된다는 말을 재진술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장이 앞선 내용의 재진술임을 인식해 뜻을 파악하고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두 가지 비판점(규범 양상 간 관계 통용 안 됨, 자유의 가치 격하)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점들에 대한 반론이 제시된다니, 기존의 비판 포인트를 인식한 상태로 그에 대한 재반박을 파악합니다.

우선 앞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서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 사례 = 규범 양상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예시만으로 법체계의 개방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폐쇄적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임을 이해한 상태로 독해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밀쳐내어 죽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와 허용 사이의 역설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산 자에 대한 위로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밀쳐내어 죽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아도 불가피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금지와 허용의 역설이 아니더라도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애도와 위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규범 양상들의 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덕스러운 법이 언제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과 같아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자유의 질은 오히려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의 가치가 격하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규범 양상들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금지되지 않은 것이 곧 허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덕스러운 법으로 인해 자유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규범 양상들의 관계가 모순되지 않는 폐쇄적 법체계가 옳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비록 일도양단의 논리적인 선택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법 상태를 옹호하게 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폐쇄적 법체계의 한계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폐쇄적 법체제도 완벽한 것이 아닌 현실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부당한 법 상태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폐쇄적 법체계가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이 있음(변화 대응 더딤, 부당 법 옹호 가능)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해했어야 합니다.

19세기 분석법학이 추구한 엄밀성은 전통적인 법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은폐된 흠결을 간파하고 이를 적극 제거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자유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엄밀성은 사법 통제의 차원에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른바 결과의 합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내리려는 시도에 대하여, 판결은 법률의 문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폐쇄적 법체계가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에 기여했고, 자의적 법 해석을 줄여줬습니다. 즉 폐쇄적 법체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점 이상으로 장점(자유 영역 확보, 자의적 해석 방지)이 있기에 폐쇄적 법체계를 지지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어야 합니다. 이때 문제점(변화 대응 더딤, 부당 법 옹호 가능), 장점(자유 영역 확보, 자의적 해석 방지)을 파악한 상태로 독해를 마무리 지었어야 합니다.

[21~23] 문제 해설

21 위 글에 제시된 글쓴이의 견해로 옳은 것은?

정답 ④
지문에서 분석법학은 양도일단의 논리적인 선택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법 상태를 옹호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분석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의 합당성을 보장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 ① : 지문에서 폐쇄적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폐쇄적 입장에서 분석법학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법을 갖는 것보다 유연한 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② : 지문에서 분석법학이 자유의 영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의해 자유가 확보된다는 것으로 글쓴이는 자유를 법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 ③ : 글쓴이는 분석법학이 자의적 해석에 대해 판결은 법률의 문헌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의 지배를 강화하려면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 글쓴이는 개방적인 법체계보다 폐쇄적 법체계가 오히려 자유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즉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입장은 자유의 확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지문의 핵심을 이해한 상태로 단순 복붙된 선지가 아닌 재구성된 선지까지 이해한 뒤 판단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2 <보기>의 법 조항에 대해 해석한 내용 중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분석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금지입니다.
발문에서 <보기>를 해석한 내용 중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해야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묻고 있기에, 폐쇄적 법체제도 가능한 해석을 찾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기>에서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폐쇄적 법체계에서는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개방적 법체계에서는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 아니다."라는 예시를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금지를 적극적 허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의 부정으로 취급하는 선지를 찾으려 합니다.

정답 ②
자살을 돕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된 행위(=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를 허용하지 않는다(할 수 없도록 한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한 해석이 아닌 폐쇄적 법체계를 전제한 해석입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출생한 이후부터 사람임으로 태아를 죽게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③ : 말기 암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행위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기>에 근거해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금지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④ : 생명이 위태로운 타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허용인데, 무관한 타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살리는 것을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는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⑤ :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살리기 위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은 개방적 법체계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코멘트

상당히 난도 높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규범 양상의 관계 + 폐쇄적 법체계의 특징과 개방적 법체계의 특징 모두를 이해하고 선지에 적용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3 [A]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명령 ⊃ 적극적 허용 / ~(적극적 허용⊃명령)
- 명령 ⊃ ~(소극적 허용)
- 금지 ⊃ 소극적 허용 / ~(소극적 허용⊃명령)
- 금지 ⊃ ~(적극적 허용)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지도 함축하지도 않음.
 ⇒ 즉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 허용의 영역에 있을 때 소극적 허용의 영역에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음(둘 모두 단정적 영역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라는 뜻으로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금지 혹은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공존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명령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① : 어떤 행위가 명령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적극적 허용이 맞고,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맞습니다.

② :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므로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혹은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공존하는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 허용을 부정하는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므로 소극적 허용의 하위인 금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금지, 혹은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공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기에 적극적 허용이며 소극적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극적 허용이거나 금지인데 금지도 결국 소극적 허용에 포함됨으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멘트

규범 양상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그 중에서 적극적 허용과 소극적 허용이 서로 배제하지도 함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총평

어려운 요소로 불리는 과한 정보량, 복잡한 비례 관계, 불친절한 과정 서술 등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문의 난도는 상당히 높고 밀도도 높은 지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당 지문은 ‘이해’ 자체가 중점이 된 지문이었습니다. 초반에 제시된 규범 양상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통해 규범 양상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파악한 관계를 통해 개방적 법체계와 폐쇄적 법체계의 논박까지 이해했어야 하는, 초반에 제시된 핵심 개념들의 이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이해하며 진행했어야 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지문은 특별한 독해 태도보다는 결국 초반의 핵심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이후에도 핵심을 상기한 상태로 내용을 이해하며(당겨 읽으며) 독해를 진행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